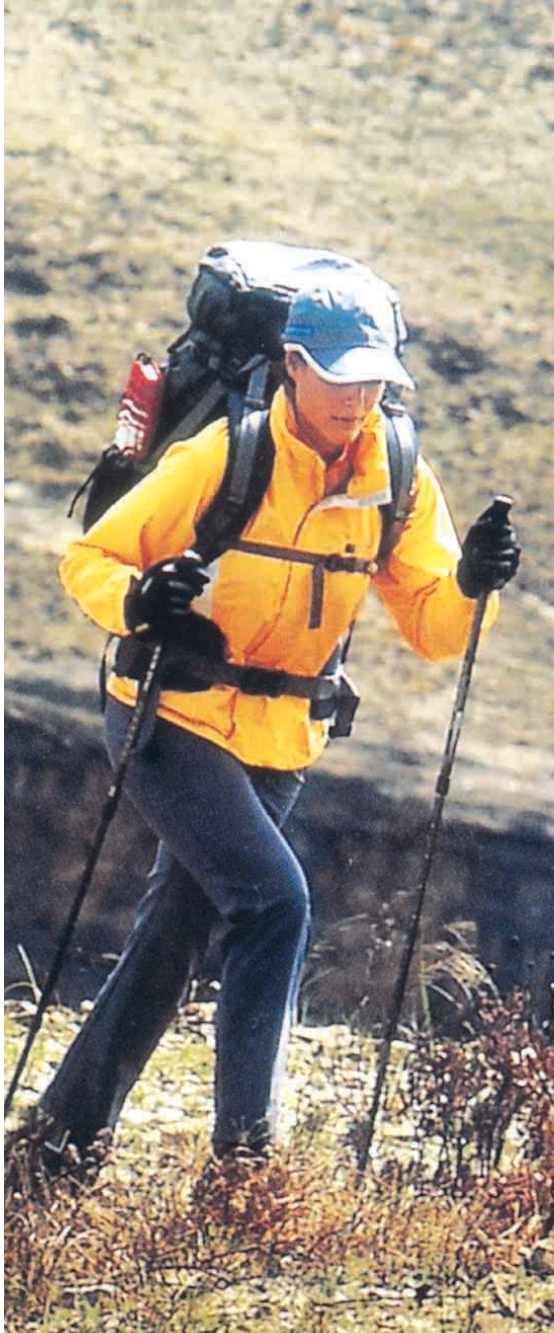


트렌드 & 스타일

■ 올 봄 아웃도어 패션은

기능은 기본, 자연보다 더 멋지게



화장품 개봉후 1년내 사용하라

파우더·아이섀도도 2년까지

‘작년 여름 사용했던 자외선 차단제 을 여름에도 써도 되나’
아침에 출근 준비를 위해 거울 앞에 앉았다 보면 화장대 위에 쓰다 남은 화장품이 눈에 띈다. 버리기엔 아깝고, 다시 쓰러니 왠지 걱정되고,
대한화장품협회의 조언으로 화장품의 사용 연한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보통 화장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조연월일과 사용기한(유통기한)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화장품은 제조연월일이 표시돼 있다.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레티놀, 비타민A 같은 원료를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 또한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제조연월일의 표시 없이 30개월(EU), 36개월(일본) 안에 변질이 일어나는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건 필수.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2~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 개봉했을 때는 제품의 유형이나 소비자의 사용습관, 보관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개월~1년 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수분이 없는 파우더나 아이섀도, 투웨이 케이크와 같은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는 개봉한 후에도 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마스크라와 아이라이너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청결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개나리와 벚꽃이 진 자리에 조금씩 초록색 순이 돋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황사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등산, 조깅 등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때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다 보면 몸이 가벼워진다. 등산복을 중심으로 올 봄 아웃도어 패션 트렌드를 알아본다.

더 가볍고 화사하게...산행 전용 속옷도 인기

▲화려하고 가볍게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컬러비스포츠웨어’ 등 이른바 아웃도어 빅4 업체들이 봄을 맞아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았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패션쇼 하러 산에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등산복 패션에 관심이 높다. 올 봄 등산복 패션의 포인트는 화사하고 밝은 색깔. 남성복은 블루의 다양한 톤과 그레이가 조합되고, 오렌지·옐로·그린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많이 사용된다. 여성복은 체리핑크나 스위트핑크처럼 화려하고 강한 핑크톤과 그린·터키색(청록) 등의 차갑고 시원한 컬러가 두루 쓰이고 있다.
코오롱 디자인실 정행아 실장은 “상의는 밝게, 하의는 어둡게 입으면서도 올해는 더욱 전체적인 컬러의 명암과 색조가 밝고 강렬해졌다”며 “일부 티셔츠와 포인트 컬러로만 존재했던 핑크, 노랑, 그린 컬러가 재킷과 티셔츠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실루엣과 환경 소재를 적용한 등산복도 눈길을 끈다. 코오롱스포츠가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통하는 아릭 레비가 참여한 ‘트렌드선 라인’은 ‘대나무 섬유’, ‘코코아 섬유’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을 살렸다.
여성과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라쿠마’는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불필요한 여유분을 줄여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등산복을 선보이고 있다. 또 번덕스런 봄철 날씨에 맞게 기존 고어텍스 재킷보다 15%정도 가벼운 ‘출결랙 라이트 재킷’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등산 마니아들 사이에서 산행용 속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행용 속옷이 대거 등장,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가격대는 1만 5천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조깅복은 폴리에스테르를 가공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가볍고 몸에 딱 맞는 스타일이 유행이다. 코오롱스포츠 ‘헤드’의 조깅복은 신축성이 좋아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입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나이키 프로 역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공한 ‘드라이 핏’(Dri-Fit) 원단을 사용, 수영복처럼 몸에 딱 달라 붙지만 움직일 때마다 잘 늘어나는 트레이닝복을 선보였다.
노스페이스 롯데 광주점 김근영(33) 매니저는 “전통적으로 많이 찾는 검은색을 비롯해 최근에는 레드, 핑크 등 화사한 색깔을 많이 찾고 예전의 사파리 스타일에서 벗어나 소재가 가볍고 배꼽까지 내려오는 짧은 스타일의 재킷이 유행”이라며 “특히 일반 의류를 구입하는 고객의 80% 정도는 전용 속옷을 함께 산다”고 말했다.



올 봄 등산복을 비롯한 아웃도어는 레드, 핑크 등 화사한 색깔이 강세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진촬영 협조=노스페이스 롯데 광주점)

▲이벤트를 노려라
‘라쿠마’는 오는 30일까지 보성 판매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의류 구입시 재킷, 배낭, 등산화 등을 가져오면 1만5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보상에 준다.
‘라쿠마’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도 상관없이 보상해준다. ‘코오롱 스포츠’는 15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팜플릿이 잘되고 통기성이 좋은 볼텍스 반팔 티셔츠와 다양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카고백을 무료로 증정한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화장품 안전 사용 방법

- 1.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제조됐다. 냉장고에 넣으면 보관에도 괜찮지만, 상온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 2.먼지가 미생물 유입 방지 위해 사용 후 뚜껑 꼭 닫기.
- 3.화장품 사용 시 깨끗한 손은 기본.
- 4.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반드시 표시기간내 사용.
- 5.물 조심. 화장품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이 섞이면 미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
- 6.화장도구 자주 빨기. 퍼프 등의 화장도구는 미지근한 물에 증정세제로 세탁한 후 완전히 말랐을 때 사용한다.
- 7.마스크라나 아이라이너는 공기가 유입되면 쉽게 굳으므로, 용기내에서 여러 번 펴광하지 않는다.
- 8.제품 내용물의 색깔이나 향취가 변했을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by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Auction Consulting Co., Ltd.),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with details like location and price.